

동마다 신선한 아이디어 '일석이조 성과'

주민 눈높이 맞춰 시정 만족도 높이고 공동체 활성화 기여

목포시의 일선 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선한 아이디어로 주민들의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자치역량도 키우는 '1석2조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주목된다.

사소한 생활밀착형에서부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목포 시책을 홍보하는 이색 아이디어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들 시책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지면서 주민소통 강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동 시책 중 가장 돋보인 아이디어는 죽교동의 '토끼 골목길' 조성이다.

죽교동에 따르면 북향로 59번 길은 인근에 6개 중·고교가 밀집된 골목길로 집단적·상습적 흡연이 이뤄지는 아지트다. 그동안 담배꽂초 상습 투기로 고질적인 민원이 발생돼 왔다.

죽교동과 동 마을공동체는 지난 4월부터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너와 나의 길'을 조성사업을 펼쳤다.

적직한 골목길 노후 벽면을 고압 세척해 벽걸이 용 꽃을 식재하고 애완용 토끼를 배치해 '토끼 골목길'을 만들었다.

죽교동 '토끼 골목길' 조성 벽걸이용 꽃 심고 토끼 사육 청소년 흡연 사라지고 먹이 챙겨

폐지 수집 리어카에 시책 광고 시민들 관심 불러일으키며 목포사랑운동 확산 힘 보태

사투리 거리 볼거리 제공하고 우리 동네 가이드 운영도 호응

토끼 골목길이 조성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됐다.

가장 먼저 흡연하는 청소년들이 사라졌다. 토끼 먹이를 챙겨주는 지킴이를 자처하는 주민들이 많아지고 토끼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면서 흡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담배 대신 토끼먹이를 챙겨다 주는 기적이 이 골목에서 일어났다.

박용국 죽교동장은 "다음 달까지 이 골목에 꽃 장미 터널을 조성하고 벽화도 완성해 8월 중에 이벤트 행사를 갖겠다"고 말했다.

신흥동의 '폐지 줍는 리어카 광고' 아이디어도 눈에 띈다.

지역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어르신들의 리어카에 목포시책인 친절·질서·정결·나눔의 '목포사랑운동' 광고판을 부착한 것으로, 이 움직이는 홍보 판이 지날때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목포사랑운동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신흥동은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취약지역 5개소에 꽃 화분과 함께 단순한 경고 문구가 아닌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예: 내 마음은 꽃처럼 고와요)로 투기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주민 스스로 목포사랑운동(정결)에 동참을 이끌어내고 있다.

강봉도 신흥동장은 "단순 경고문보다 화분과 함께 감성을 자극하는 문구 안내판을 부착한 뒤로부터 무단투기에 대한 주민의식이 약간의 변화돼 정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만호동의 '1897 개항문화거리 특화조성' 과 '우리 동네 가이드 운영'도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꼽힌다.

개항문화거리 특화조성은 연초 손혜원 이슈로 외지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근대역사관 2관-갑자옥 모자점-김영자 갤러리에 이르는 거리에 주정차 공간 확보를 위해 노상적치물을 없애고 태극기 게양과 함께 사투리 거리를 조성해 볼거리를 제공한 사업이다.

또 동네 가이드 시책은 동 자체 교육을 통해 양성한 가이드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주말과 공휴일에 갑자옥 모자점, 창성장 일원에 배치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목포역사는 물론 유명 관광지와 맛 집을 안내해 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 시책을 총괄하는 강명원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목포사랑운동 특색시책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면서도 주민들 가까이 다가가는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죽교동 행정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의 상습 흡연공간인 골목길에 벽걸이용 화분을 배치하고 애완용 토끼 사육장을 만들어 환경을 개선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만호동 행정복지센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주말과 공휴일 주요 관광지에 동네 가이드를 배치해 맛집 등을 안내해 주는 시책을 펼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 관광객 1000만 시대 원년 이끌 '가을 문화예술 축전' 밑그림 나왔다

시, 실무협의회사 로드맵 확정 9~10월 항구축제·목포야행 등 8주동안 162개 프로그램 진행

목포시가 관광객 방문 1000만 시대 원년을 맞아 가을여행 주간인 9~10월에 각종 문화예술 및 축제 행사를 집중 개최하기로 한 '가을 문화예술 축전' 프로젝트의 윤곽이 드러났다.

3일 목포시에 따르면 올 문화예술 축전은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를 슬로건으로 8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8주간 매주 금·토·일요일에 원도심권·평화광장·북항 노을공원 3각축을 중심으로 개최된다.

8주동안 펼쳐질 사업은 항구축제, 목포야행, 세계 마당페스티벌 등 규모가 큰 행사에서부터 공연·전시·문학 등 소규모 행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162개 행사로 다양하다.

주간별 주요 행사프로그램으로 1주차(8월30일-9월1일)에 제9회 목포세계 마당페스티벌이 열리고 2주차(9월6일-8일)엔 2019 왕년의 목포축제와 시립예술단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어 추석 연휴는 쉬고 3주차(9월20일-22일)엔 목포 문화재 야행과 목포 가요축제가, 4주차(9월27일-29일)엔 전국 통기타 공연, 가을밤의 국

악 대향연, 노을객백 파티가 열린다.

특히 5주차(10월3일-6일)에는 이번 축전의 하이라이트인 목포 항구축제가 삼학도 일원에서, 6주차(10월11일-13일)에는 난영가요제와 (가칭) 생활·문화·예술 동호인 축제가 펼쳐져 흥을 돋구게 된다.

또 7주차(10월18일-20일)엔 서산동 보리마당에서 '골목길이 춤춘다' 프로그램과 시립교향악단·합창단의 정기 연주회가 가을밤을 수놓게 되고 마지막 8주차(10월25일-27일)엔 북항노을공원에서 (가칭)국도1호선의 밤에 술 공연이 이번 가을축전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

이와 관련 목포시는 지난 31일 목포문화재단, 극단갯돌, 목포 신안예총, 목포문화원, 시립예술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실무협의회를 갖고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날 김종식 목포시장은 "근대역사 문화 자산, 맛의 도시, 슬로시티, 가을 문화예술 축전 등 목포만이 갖는 4대 상품을 브랜드화해서 목포를 팔아먹자는 게 근근 취지"라면서 "무조건 가을여행은 낭만항구 목포로 가자는 말이 유행어가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대로 된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줄 포 가요축제가, 4주차(9월27일-29일)엔 전국 통기타 공연, 가을밤의 국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사랑 상품권 다음달 100억 규모 발행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100억원 규모의 '목포사랑 상품권'이 발행된다.

목포시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오는 7월 '새천년-목포사랑상품권'을 100억원 규모(86만장)로 발행한다.

목포사랑상품권은 3종(5000원권, 1만원권, 5만원권)으로, 오는 8월부터 시중에 판매·유통된다.

할인율은 평상시에는 6%, 명절에는 10%가 적용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으로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융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반영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특히 목포시는 이번 목포사랑상품권이 지역화폐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가맹점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보고 가맹점 모집에 사활을 걸기로 했다.

상품권 가맹점 대상은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미용실, 의류매장, 문구점, 학원 등 주로 생활밀착형 점포로, 5월말 현재 대상 점포수만 1만700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만~1만2000곳에 달하는 가맹점을 확보한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이와 관련 김덕용 목포시 지역경제과장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와 현금 등도 함께 쓰기 때문에 매출액 상승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품권이 시민의 생활에 스며들고,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상권을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금고 선정 때 순위·총점 공개

투명성 강화하기로

목포시가 앞으로 목포시 금고 선정 심사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해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시는 3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

한 조례'를 개정해 심사위원회의 평가결과 공개 조항(제11조 5항)을 신설, 앞으로 평가결과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이 공개된다고 밝혔다.

또 협력 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제15조 제4항)도 신

설했다.

이는 연평균 협력 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와 평균 잔액 대비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금고 선정 때 평가항목의 배점 기준도 일부 변경됐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32점에서 27점으로 줄고,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융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반영률이 크게 높아졌다.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 사업'은 9점에서 7점으로 낮아졌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조선의 시인 『돌이라는 새』 출판기념회

- 일 시 | 2019년 6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5·18교육관 강당
- 후 원 | (사)서은문명란문학연구소, 시꽃피다
- 구매 문의 | 시산책사 ☎ 02-764-8722



시집 『돌이라는 새』는 조선의 시인의 새로운 시 세계를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신선하고 낯선 경험이자 한국시의 숨은 보석을 만나는 행운과 다른 말이 아니었다. (중략) 우리에게 삶은 대개 어떤 제한에서 자유롭기 힘든 물음표 같은 속성을 갖는다. 조선의 시인은 이를 뛰어넘어 자유를 향해 열려있는 느낌표로서의 삶을 꿈꿨다.

- 권운(문학평론가) 해설 중에서



시인 조선의 ● 김만중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당신,반칙이야』, 『어쩌면쓰라린날은 꽃피는 동안이다』, 『모든 빛을 소환하다』 출간